

 농림축산식품부	동 정	
2020년 4월 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수출진흥과 과 장 김상진(044-201-2171), 사무관 노승호(2172) / 제공일 : 4월 8일(총 3매)		



농식품부 김현수 장관, 파프리카 수출 현장 점검(4.8) **-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및 파프리카 수출 애로사항 청취 -**

-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4월 8일 오후 3시 충북 진천군 소재 파프리카 수출업체인 (주)썬메이트 방문하여 파프리카 수출 영향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 - 이날 현장에는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 ‘코파’ 대표, 충북도 부지사·진천군수·도농업기술원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.
- 우리나라 대표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는 주력 시장인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.

 -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언되어, 외출자제 권고 등으로 외식업체·대형마트 등에서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.
 - 특히, 파프리카는 일본 수출량이 전체의 99% 이상이고 4월부터 7월까지 생산과 수출이 집중되어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.

□ 이에 농식품부는 마케팅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.

○ 편의점, 소형마트 등 코로나19로 비중이 늘고 있는 유통경로에 대한 공격적인 판촉을 강화한다.

○ 아울러, 주력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에서의 태블릿 활용 영상 홍보(E-pop), 파워블로거 홍보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.

○ 지난해 말 검역협상이 타결된 중국시장 진출의 마지막 단계인 농장 현지 실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출 시장도 다변화할 계획이다.

□ 김현수 장관은 “코로나19로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 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”고 당부하며,

○ “정부에서도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물류와 마케팅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고 강조하였다.

참고 : 코로나 19 관련 수출 지원 현황

□ (물류) 중국 내 해외공동물류센터 및 냉장·냉동 운송 지원 확대(~1분기)*, 항공 감편 및 운임 상승 대응을 위한 물류비 추가 지원(34억원)**

* 공동물류센터 지정: (19) 15개소 → (20) 17 / 냉장·냉동 운송 지원: (19) 20개 도시 → (20) 25

** 물류비 인상 등 여건 분석(3.5~13) → 물류비 기준 마련 및 시행(3.16~4.1)

○ 항공으로 수출하던 딸기 수출업체들의 해상 컨테이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유지 기술 적용 지원

* 딸기 수출 1·2위 업체가 싱가포르 선박 수출 최초 추진(CO₂ 보관 기술 적용)

□ (마케팅)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등의 재고 소진, 온라인 유통 확대 및 시장 다변화 판촉 등 긴급 마케팅 지원(33억원, ~2분기)

○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전후 수입물량 재고를 보유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재고품목(유제품 등) 판촉 추진(~5월)

○ 품목별 수출협의회 소속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 전략 품목(유가공·장류·유자차 등) 판촉 추진(~6월)

○ 대중국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등 온·오프라인 판촉 추진(~8월)

* 태국·베트남·인니·싱가폴·말련·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국가 대상

□ (금융) 농업경영체 및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200억원 추가 지원(3,481억원 → 3,681억원), 및 금리 인하

○ 중국 수출 비중이 30%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적용금리 0.5%p 인하

* 29개 업체 대상으로 추가 지원자금 200억원 전액 배정 완료(4.2 현재)